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발행일 2026. 10. 18. 발행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편집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2026 Vol.16



OECD 교육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특성

박근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로 OECD 최고 수준임. 시계열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에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8년 이후 캐나다와 일본을 추월함. 단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다고 해서 대학원 교육 이수율까지 높은 수준인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 25~34세의 석·박사 학위 취득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음. 또한 2022년 기준 학사 학위 졸업자 중 국·공립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22.1%, 석사 학위 졸업자 중 국·공립대학 졸업자의 비율은 28.8%, 박사 학위 졸업자 중 34.4%를 기록하여 OECD 평균을 밑돌았음. 다만, 국제 지표를 해석할 때는 지표의 측정 범위와 산출 기준, 국가별 제도의 차이를 함께 고려해야 함.

2026년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으로, 국제 교육지표를 활용한 국가 간 비교의 의미를 되짚어보기에 적절한 시점이다. 본문에서는 OECD의 「OECD 교육지표(EAG)」와 Data Explorer의 자료 제공 체계를 소개하고, 고등교육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교육체제의 특징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현재 OECD 최고 수준인데, 1990년대 후반 이후의 급속한 고등교육의 확대가 여기에 일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석·박사 학위 취득률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시에서 지표를 통한 국제 비교가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유용함을 제시하는 한편, 보다 신중한 국제 지표 해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들어가며: OECD 가입 30주년과 교육지표의 의의

2026년 올해는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이다. OECD 가입은 선진국들과의 경제·무역·산업·금융 정책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정책 논의의 국제 공론장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교육, 노동, 복지, 보건, 환경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국제 기준과의 비교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전반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김중수, 1996). 특히 OECD가 1970년대부터 개발과 활용을 강조해 온 사회통계 및 지표(Scrivens & Iasiello, 2010)를 적용하여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별 상황을 다른 회원국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정책 보완을 통한 개선 방향 탐색의 기반이 마련된 것도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지표(indicator)를 생산하는 목적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현상과 그 변화를 이해가 쉬운 간략한 정보로 바꾸는 데 있다. 따라서 지표의 가장 일반적인 정의는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특성을 나타내는 관찰 가능한 속성”(Bunge, 1975)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직관적인 이해 가능성’을 통해 개별 국가, 지역, 집단의 속성을 다른 대상과 비교할 수 있고, 같은 대상 간 다른 시점에 대해서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표는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통계치 또는 특정 형태의 증거”(Bauer, 1966)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5년부터 OECD의 교육지표사업에 참여해 왔다(한국교육개발원, 2025). OECD 교육혁신연구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이하 CERI)는 1987년 교육 분야 전 영역에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정량적인 지표를 개발·분석하기 위한 교육지표시스템(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이하 INES) 사업을 출범시켰고, 1992년부터는 「OECD 교육지표」(영문명 「Education at A Glance」 또는 EAG)라는 간행물을 통해 회원국들이 자국 교육체제를 다른 나라의 현황 및 성과와 비교할 수 있도록 지표 분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OECD, 2017).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간 축적된 지표를 시간 축을 따라 종적(縱的)으로, 또는 다른 집단 간 횡적(橫的)으로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대상이 가진 현재의 변별력 있는

특징과 역사적인 변천의 과정에 대해 이해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본문에서는 OECD 교육통계 자료 제공 체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한 후, 얼마 전 발표된 2026년 「OECD 교육통계」(EAG 2026)에서 고등교육과 관련된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제도 및 현황을 다른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지표가 대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 제시하려 한다.

「OECD 교육지표 (EAG)」와 OECD Data Explorer

OECD 교육·기술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에 소속된 CERI는 주로 연구 중심의 교육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1987년에는 교육 분야의 자료 수집 및 지표 개발을 위한 INES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 교육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제 비교를 활용하려는 경향이 증가한 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1992년부터 발간된 「OECD 교육지표(EAG)」는 교육 선도 국가들의 교육체계를 다른 나라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자료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현재 EAG는 원칙적으로 매년 9월 둘째 주 화요일(OECD 본부 기준 시간)에 모든 OECD 회원국이 동시에 발표하고 있으며, 한국어 번역본(=「OECD 교육지표」)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당해 12월에 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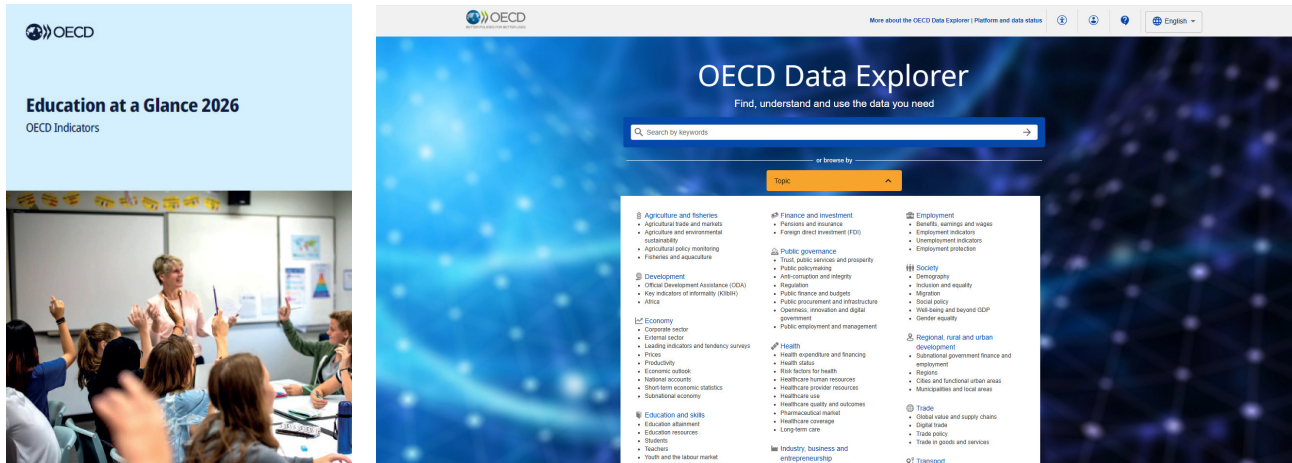
「OECD 교육지표(EAG)」는 총 4개의 파트(Part)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파트에는 챕터(Chapter) 단위로 구분되는 세부 주제별 분석이 표(table), 그래프(chart)와 함께 제시되어 있다. A 파트는 교육기관의 산출 및 학습 효과, B 파트는 교육에의 접근, 참여, 진학, C 파트는 교육에 투자된 재정적 자원, D 파트는 교사, 학습 환경 및 학교조직으로 구분된다. 그밖에 매년 기존 A~D 파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새로운 주제들을 발굴하여 특별 파트나 챕터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올해의 경우 ‘교사 부족 및 교직 매력도’가, 2025년의 경우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에서 나타난 성인의 핵심 정보처리 역량’을 다룬 바 있다.

「OECD 교육지표(EAG)」에 제시되는 총 지표의 수는 7~80여 개로, 매년 봄·가을에 소집되는 INES의 정기회의에서 참여 회원국들의 협의를 통해 구성안을 확정한다. 매년 정기적으로 수록되는 기본적인 지표가 있는가 하면(e.g.,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 수 등), 시기별로 각각의 필요에 따라 신규 개발·편입되는 지표도 있다. 지표들의 조사 기준 연도는 발간되는 해를 t년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t-1이나 t-2년인 경우가 많지만, 재정 자료의 경우 각국의 회계연도 차이로 인해 t-3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OECD 교육지표(EAG)」에 수록된 지표 대부분의 원자료는 OECD가 제공하는 자료 제공 웹페이지인 OECD Data Explorer(<https://data-explorer.oec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Data Explorer는 OECD의 개별 정책국(Policy Directorate)과 센터가 수집한 자체 데이터를 경제, 환경, 산업, 의료 등 모두 16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중 교육

분야는 Education & Skills라는 별도의 범주로 분류되어 있다. 이 범주에서는 더욱 세분된 개별 지표를 교육 이수, 교육 자원, 학생, 교사, 청년과 노동시장, 하위(세부) 단위의 교육 지표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자료 추출(Customized Data Extraction) 방식을 채택하여, 각 지표에 대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기, 성별과 연령, 대상 국가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 EAG 2026 표지(左)와 OECD Data Explorer 초기 화면(右)



EAG 지표로 알아보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특성

우리나라가 OECD INES에 제출한 교육지표들 중에는 전체 회원국(38개)과 파트너 참여국(2026년 현재 12개국)을 통틀어 전체 1위를 차지하는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면 교사의 총원율이나 3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교육기관 취원율 등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전체 1위 수준을 보이고 있고(OECD, 2024), 청년층(25세~34세)의 최근 1년간 비형식(non-formal) 교육·훈련(비)참여율(OECD, 2026)이나 0~4세 인구 변화의 추이 및 전망(OECD, 2025a) 등의 지표에서는 부정적 의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 오랜 기간 가장 눈에 띄는 지표는 청년층(25세~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이다.

2026년 9월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만 25세~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전문학사~박사) 이수율(2025년 기준)은 71.1%로 OECD 전체 회원국에서 가장 높다. 이는 OECD 전체 평균인 48.8%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며, 전통적으로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67.7%)나 일본(67.5%)¹⁾과도 비교적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만 25세~64세 연령대에서도(2025년 기준) 아일랜드(58.73%)보다는 근소하게

1) 여기에 제시된 지표값은 OECD Data Explorer에서 표기된 인출일에 추출된 것으로, 「OECD 교육지표(EAG)」에 출간된 지표 값과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낮고, 일본(57.93%)보다는 조금 높은 58.19%를 기록하여 전체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²⁾ 이와 같은 지표가 제시하는 바는 매우 명확하다. 우리나라에서 고등교육, 특히 ‘대학 교육’이 개인의 삶과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각별하고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림 2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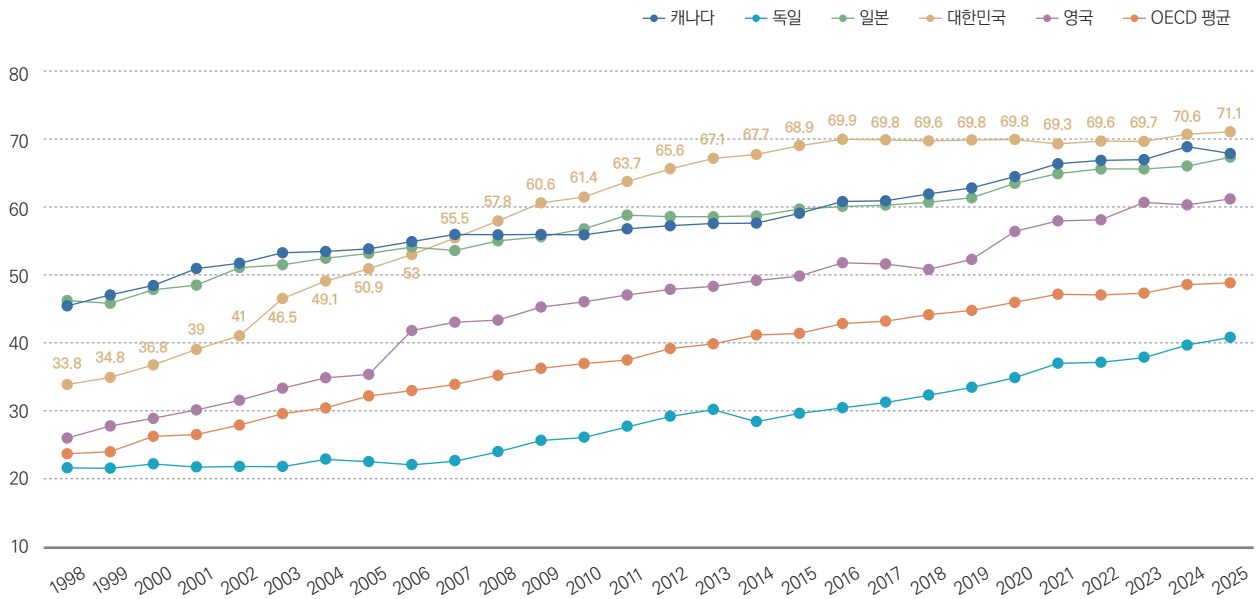
출처. OECD Data Explorer <인출일: 26. 10. 02>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 이수율은 오래전부터 이와 같이 높았던 것일까? 고등교육 이수율 지표에서 OECD 평균값이 산출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캐나다,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주요 국가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처음부터 OECD 최고 수준을 나타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1998년에도 23.6%에 불과한 OECD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이수율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캐나다나 일본의 이수율을 추월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2008년이였다. [그림 3]에 제시된 도표의 기울기로 평가했을 때,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이수율이 급속하게 증가한 시기는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중반이였다. 4년제 대학만으로 예시를 든다면, 2008년 우리나라의 대학 개수는 174개로 1998년 대비 18개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는 1998년 1,477,715명 대비 2008년 1,943,437명으로 465,722명(31.5%)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 이수율은 1998년 33.8% 대비 24.0%p 증가하여 2008년 57.8%를 기록하였다³⁾.

2) 해당 지표의 1위는 캐나다(63.94%)임.

3)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통계 (<https://kess.kedi.re.kr/index>)

그림 3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시계열 변화 및 주요 국가와 비교



출처: OECD Data Explorer <인출일: 26. 10. 02>

우리나라 고등교육에서 사립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 이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규모를 바로 측정하기보다는 학사·석사·박사 학위 졸업자에서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을 통해 역으로 추정하는 편이 수월하다. [그림 4]에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학사 학위 졸업생 중에서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22.1%로 자료를 제출한 37개 국가 중 33위를 나타냈다. 또한, 우리나라의 석사와 박사 졸업생 중 국·공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8.8%와 34.4%로 학사 졸업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지만, OECD 평균인 65.5%와 75.7%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았다. 즉,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제도에서 사립대학의 비중이 큰 국가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제시하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국가마다 고급 인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 사립대학에 의존하는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다. 캐나다, 그리스, 룩셈부르크의 경우 학사·석사·박사 모든 수준에서의 학위가 국·공립기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덴마크의 경우에도 극히 일부의 학사 졸업생을 제외한 모든 단계의 학위가 국·공립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다. 또한 뉴질랜드와 핀란드의 경우에는 학사와 석사 과정에 사립대학 출신이 있지만, 박사의 경우 100% 국·공립대학이 관리하고 있다. 반대로 우리나라처럼 학사 학위 졸업자의 국·공립대학 비율이 낮은 이스라엘의 경우, 박사 학위 과정은 100% 사립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위해 상쇄(trade-off)시킨 특성이 지표에 반영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개념, 예를 들면 ‘고등교육’이나 ‘교수’와 같은 기본 용어조차도 각 국가의 역사적, 법률적, 제도적 특성을 면밀히 따져 보면 정확히 같은 개념이 아닐 수 있다. ‘교수’의 경우, 국가나 지역마다 법적 지위나 자격, 그리고 관례적으로 교수로 인정되는 범위가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INES와 같은 국제 지표 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차이를 최대한 줄여, 동일한 기준에 맞춘 지표값을 산출하려 하지만, 그러한 시도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지표 간 국제 비교를 해석할 때는 지표와 관련된 개념 및 산식 적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지만 수치에 대한 오해나 과대/과소 해석을 예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중수 (1996). "세계화·자유화와 선진한국경제: OECD경제 패러다임." 월간 『나라경제』 12월호, p.43-47. 한국개발연구원(KDI).
- 한국교육개발원 (2025). 2025년도 교육지표사업 참여 사업보고서. 수탁기술보고 CTR2025-54. 한국교육개발원.
- Bauer, Raymond A. Social Indicators. 1966. The MIT Press Ltd. MA.
- Bunge, Mario. 1975. "What is a Quality of Life Indicator?" Social Indicators Research, 2(1):65-79. Cambridge.
- OECD (2026), Education at A Glance 2026: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4968bbc-en>.
- OECD (2025a), Education at A Glance 2025: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c0d9c79-en>.
- OECD (2025b). Education at A Glance 2025: Korea Country Note.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education-at-a-glance-2025_1a3543e2-en/korea_252c9ed2-en.html
- OECD (2024), Education at A Glance 2024: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00cad36-en>.
- OECD (2017), OECD Handbook for Internationally Comparative Education Statistics: concepts, standards,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9789264279889-en>.
- Scrivens, K. & Iasiello, B. (2010), Indicators of "Societal Progress": Lessons from International Experiences.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2010/04. OECD. <https://dx.doi.org/10.1787/5km4k7mq49jg-en>.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

